

##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영숙\*\*      신나리\*\*\*

###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to Mother and Teacher on Adaptation to Child Care

Kim, Young Suk      Shin, Nary

본 연구는 만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애착안정성과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시에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 2세 영아의 어머니 100명과 담임교사 3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이원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차원인 사회적 관계 및 긍정적 감정의 경우 교사와 영아 간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 적응 및 긍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교사와의 안정애착 형성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의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어머니-영아 애착안정성, 교사-영아 애착안정성, 어린이집 적응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제1저자: 청주어린이집 교사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binah2009@cbnu.ac.kr

## I. 서론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증가, 상승하는 물가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 또한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유아보다는 영아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0세부터 2세까지의 연령별 어린이집 등록 영아 수는 각각 177,157명, 321,716명, 372,81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는 0세의 경우 해당 연령의 인구 중 37.64%가, 1세는 68.31%가, 그리고 2세의 경우는 무려 전체 인구의 83.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관 이용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동년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7%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최근의 어린이집 이용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자녀의 조기교육 및 사회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영아 대상의 무상보육이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영아의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미성숙한 존재로 태어나 오랜 기간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인간 종의 특수성상 영아기에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의 양육보다는 어머니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영아들에게 어린이집 생활이란 애착 대상과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이 영아의 안정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애착발달 관점과는 상치되기 때문이다(Cl Clarke-Stewart, 1989). 따라서 생애 초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하는 영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무리 없이 분리되어 어린이집 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져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장은미, 2008). 즉,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의 성공적인 전이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영아기에 어린이집에 적응한다는 것은 영아가 어린이집 환경에 자신의 고유한 욕구와 특성을 잘 맞추며 어린이집 일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과 또래 및 기관 간 불균형과 긴장감 없이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김귀자, 2004; 김지은, 2003).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데(Lauritzen, 1988), 영아기 애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애착 이론에서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이를 통해 내적 표상을 형

성하고, 이러한 표상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하는 것으로(신혜원, 2004),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 환경에 비교적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신희남·조희복, 2012). 해외 연구 결과 영아기에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보다 어린이집에서 사회정서적인 적응을 더 잘하였고(Blanchard & Main, 1979),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 어머니와 애착이 잘 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좀 더 쉽게 한다는 관점은 지지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영아보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어린이집 적응과 어머니와의 애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흥미롭게도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본 국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진아(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종은(2001) 또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만2세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긍정적인 반면, 만1세아의 경우 오히려 안정애착이 영아의 적응에 부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영아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예언하지 못한다는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는 어린이집 맥락에서의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교사이므로,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전기반에 해당하는 교사와의 애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고된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행동과 외현적 행동을 살펴본 신지연(2004)의 연구 결과,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게만 안정애착한 영아의 경우에도 긍정적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어머니와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으나 교사와는 그렇지 못한 영아는 양육자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한 영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어린이집 적응에 어머니 보다는 교사와의 애착이 더 영향력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는 일부 해외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Cassibba, Van Ijzendoorn과 D'Odorico(2000)는 영아의 사회적 놀이와 인지적 놀이행동에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교사와의 애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Copeland, Denham과 Demulder(1997)는 이러한 경향이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영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애착을 고려할 때, 단지 영아-어머니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다른 성인과 영아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Jackson(1993)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영아가 어머니 이외의 다른 성인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을 대안 애착이라고 하는데, 초기 대안 애착 관련 연구에서는 대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관심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영아가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도 가족 외 성인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교사와의 애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 애착에 관한 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아가 애착을 맺는 대안 애착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안 애착 대상과의 애착 유형이 어머니와 맺은 애착 유형과 동일한지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외에 대안 애착 연구의 주요 주제는 대안 애착 대상과의 애착 형성 과정이 어머니와의 형성과정과 같은지에 대한 것이다(서원경, 2004). 그 결과 대안 애착의 대상자는 일반 애착과 동일하게 장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 중 따뜻하고 민감하며 일관된 개별적 양육을 제공하는 양육자로 밝혀지고 있다(Anderson, Nagel, Robert, & Smith, 1981). 이는 교사의 특성과 보육의 질에 따라 영아가 대안적인 애착 대상인 교사에게 어머니와 형성된 애착 유형과는 독립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적응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교사와 형성한 애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아에게 있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관이자 집단인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에 다니게 될 학교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적응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장은미, 2008), 이에 미치는 예측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애착안정성이 영아기의 전반적인 적응 행동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은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어린이집에서의 주양육자인 교사와 영아 간 애착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어린이집 적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영아, 교사-영아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오종은, 2001; 이해영, 2006; 허정숙, 2008), 교사-영아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구수연, 2005; 권인옥, 2008; 양숙경, 2010; 양은주, 2010; 이명주, 2010)와 같이 두 변인과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며,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애착안정성이 어린

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착이 영아의 적응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영아의 성공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적응을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사회적 관계, 긍정적 감정, 공격적 행동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 수준은 달라지는가?
2.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긍정적 감정 수준은 달라지는가?
3.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공격적 행동 수준은 달라지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C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어린이집 7개소를 이용하는 만1세와 만2세 영아의 어머니 100명과 담임교사 3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이 되는 영아는 성과 연령별로 동일한 수가 되도록 성과 연령에 따라 각각 50명씩 선정하였다. 단, 영아기의 교사 애착은 재원 기간이 최소 2개월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선행연구 결과 (Clarke-Stewart, 1987; McCartney, 1984)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게 3개월 이상 보육을 받아온 영아로 제한하였다. 복수담임제로 운영되는 반의 경우는 복수의 담임교사 중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를 기본으로 하되, 담당교사의 협의 하에 해당 영아를 더 오랫동안 보육했거나 영아와 안전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육교사를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의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33.95세 ( $SD=3.98$ 세)로, 어머니 학력은 2/3년제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와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어머니 중 취업모가 48%로, 취업 중인 어머니 직업은 사무직이 31.3%로 가장 많았고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이 16.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육교사의 연령은 평균 36.47세 ( $SD=7.64$ 세)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력은 평균 48.56개월 ( $SD=36.45$ )이었다. 응답 교사들 중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는 민간

어린이집이 50%, 가정어린이집이 50%로 동일한 비율이었다. 전담여부를 살펴보면, 영아전담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6.7%, 비전담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 33.3%의 비율을 보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특성			n	%
어머니 특성	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	35.0
		2/3년제 졸업	38	38.0
		4년제 졸업 이상	27	27.0
	모취업여부	미취업	52	52.0
		취업	48	48.0
	모직업	사무직	15	31.3
		전문직	12	27.1
		판매서비스직/기타	12	25.1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8	16.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5	5.0
		200~300만원 미만	35	35.0
		300~400만원 미만	27	27.0
		400~500만원 미만	23	23.0
		500만원 이상	10	10.0
	보육교사 특성	결혼여부	미혼	24
기혼			12	27.8
근무기관 설립유형		가정어린이집	18	50.0
		민간어린이집	18	50.0
근무기관 영아전담여부		전담시설	24	66.7
		비전담시설	12	33.3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영아의 애착안정성

어머니-영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한국판 애착 Q-set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Waters(1987)의 Q-set 개정판을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영아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문항이 기술된 90장의 문항 카드를 어머니가 1점에서 9점까지 9단계로 분류한 후, 개별 문항 점수와 한국판 애착 Q-set 애착안정성 준거점수와 의 상관을 구하여 애착안정성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영아별 애착안정성 점수는 Waters(1987)가 제안한 바대로 어머니의 애착이 상위 2/3에 속하는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로, 하위 1/3에 속하는 영아는 어머니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로 분류하였

다(신지연, 2004, 재인용).

## 2)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애착 Q-set 문항을 기초로 양애경(2006)이 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90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 도구에서 교사와의 애착 측정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30개를 선정한 후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한 것이다.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측정된 본 도구의 점수화는 문항별로 응답자가 부여한 점수와 한국판 애착 Q-set 애착안정성 준거점수와의 상관을 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영아별로 부여된 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2/3에 속하는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로, 하위 1/3에 속하는 영아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로 분류하였다.

## 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이 유아의 기관 적응 측정을 위해 개발한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PAQ)를 오중은(2001)이 번안하여 만 1, 2세 영아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원 도구는 ‘친사회적행동(4문항)’, ‘긍정적 감정(7문항)’, ‘또래관계(6문항)’, ‘자아강도(4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9문항)’의 총 5개 차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 문항을 제외하였다(예: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거나 교대로 갖고 논다, 다른 아이가 진행 중인 활동에 건설적으로 개입한다, 장난감 등을 나누어 쓴다 등). 또한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부분개정에 따라 원 도구에서 보육시설이라고 진술된 용어를 모두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주성분추출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강도’의 모든 문항과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항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아, 총 3개의 요인이 수렴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과 ‘일과에 대한 적응’의 문항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또래관계의 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에 수렴된 요인별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6문항)’, ‘긍정적 감정(8문항)’, ‘공격적 행동(3문항)’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된 요인별 내적일관성은 각각 .83, .80, .68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 영아 어린이집 적응 척도 문항 구성

하위 차원	문 항	원도구 하위차원
사회적 관계	친절하다.	긍정적 감정
	자기 의사를 몸짓이나 말로 표현한다.	긍정적 감정
	대체로 친구들과 잘 지낸다.	또래관계
	하루 일과를 이해함을 알 수 있다.	일과에 대한 적응
	일과 중 대체로 교사에게 협조적이다.	일과에 대한 적응
	친구나 선생님이 기분 나빠할 때 관심을 표현한다.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편안해 보인다.	긍정적 감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긍정적 감정
	잘 운다.	긍정적 감정
	활기 있다.	긍정적 감정
	보호자와 비교적 잘 헤어진다(헤어질 때는 울지만 곧 진정한다).	일과에 대한 적응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불안해한다(장소이동, 낯선 성인의 등장 등).	일과에 대한 적응
	보호자와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한다.	일과에 대한 적응
	종합적으로 다른 아이에 비해 어린이집에 잘 적응 했다고 생각한다.	일과에 대한 적응
공격적 행동	놀잇감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긍정적 감정
	다른 아이의 놀잇감이나 물건을 빼앗는다.	또래관계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공격을 한다(때리기, 차기, 밀기 등).	또래관계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2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소개서와 부모 동의서를 각 어린이집에서 해당 연령 영아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서 애착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교사와의 애착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 이외에 이원변량분석과 사후비교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와 교사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영아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영아 간 애착의 경우 안정적인 집단의 평균과 불안정한 집단의 평균이 각각 2.80과 2.81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교사와 영아 간의 애착이 안정된 집단의 사회적 관계 평균은 2.92, 불안정한 집단의 평균은 2.56으로, 교사-영아 간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이 불안정한 집단보다 사회적 관계 적응 정도가 월등하게 높았다.

<표 3>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어머니			
	안정( <i>n</i> =66)	불안정( <i>n</i> =34)	전체( <i>N</i> =100)	
교사	안정( <i>n</i> =66)	2.86(.38)	2.65(.43)	2.92(.37)
	불안정( <i>n</i> =34)	3.04(.32)	2.44(.59)	2.56(.51)
	전체( <i>N</i> =100)	2.80(.40)	2.81(.53)	2.8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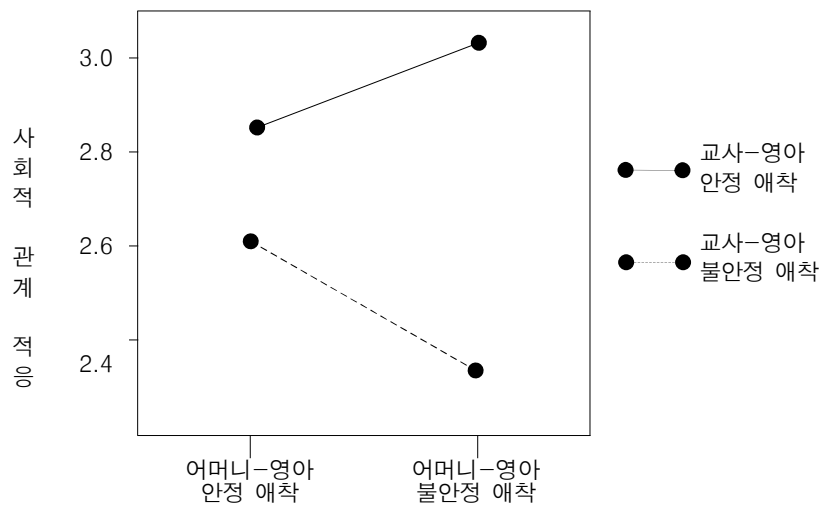
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중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하여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 적응 수준이 높으나,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와 영아 간 불안정 애착 집단에서 두드러져,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교사와 영아 간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사회적 관계 적

응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N=100)

요인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여부	1	.01	.01	.04
교사-영아 안정애착 여부	1	3.30	3.30	19.83**
상호작용	1	.77	.77	4.55*
오차	95	16.259		
합계	100	805.67		
수정합계	99	19.80		

\*  $p < .05$ , \*\*  $p < .01$ .



[그림 1]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관계

도식화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것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인 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에 따라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와 그렇지 못한 영아 간 사회적 관계 적용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후검증하였다. 사후검증은 Bonferroni 보정을 통한 단순비교(simple comparison)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영아 간 애착이 불안정한 집단에서만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이 정확했음을 시사하였다(<표 5> 참조).

<표 5> 영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사후검증 (N=100)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여부	교사최종(I)	교사최종(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안정	안정	불안정	.213	.112	.060
	불안정	안정	-.213	.112	.060
불안정	안정	불안정	.604***	.145	.000
	불안정	안정	-.604***	.145	.000

\*  $p < .05$ .

## 2. 어머니와 교사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긍정적 감정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보이는 긍정적 감정의 경우, 어머니-영아 애착과 교사-영아 애착 모두 안정적인 집단의 평균이 불안정한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의 평균은 2.85, 불안정한 집단의 평균은 2.67로 다소 차이가 났으며, 교사-영아 간 안정 애착 여부에 따른 긍정적 감정 또한 안정 집단이 2.88, 불안정 집단이 2.59로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긍정적 감정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긍정적 감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어머니			
	안정( <i>n</i> =66)	불안정( <i>n</i> =34)	전체( <i>N</i> =100)	
교사	안정( <i>n</i> =66)	2.88(.53)	2.76(.32)	2.88(.51)
	불안정( <i>n</i> =34)	2.87(.47)	2.35(.75)	2.59(.57)
	전체( <i>N</i> =100)	2.85(.48)	2.67(.64)	2.7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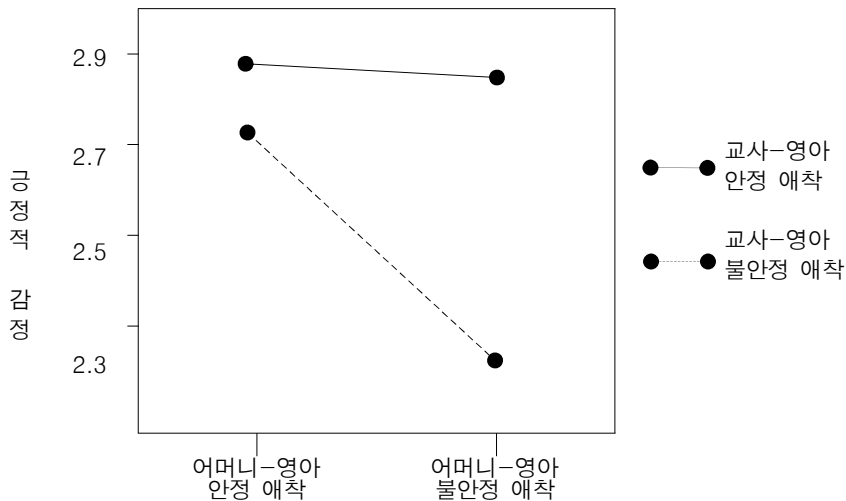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 및 교사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애착안정성에 따른 긍정적 감정의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한 결과([그림 2] 참조),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 감정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와 영아 간 불안정 애착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즉,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교사와의 불안정 애착이면 긍정적 감정수준이 낮았지만, 교사에 대해 안정적으로 애착이 된 경우에는 긍정적 감정 수준이 높았다.

<표 7> 영아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N=100)

요인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여부	1	.92	.92	3.38*
교사-영아 안정애착 여부	1	2.11	2.11	7.77**
상호작용	1	.82	.82	3.01*
오차	96	13.23		
합계	100	879.90		
수정 합계	99	16.27		

\*  $p < .05$ , \*\*  $p < .01$ .



[그림 2]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긍정적 감정

다음의 <표 8>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상호작용 효과의 검증을 위해 조절변인인 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에 따라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와 그렇지 못한 영아 간 긍정적 정서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순비교를 이용하여 사후검증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영아 간 애착이 안정한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 모두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긍정적 감정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에 관계없이 교사와 애착을 안정적으로 한 경우 그 수준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영아의 경우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영아의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 사후검증 (N=100)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여부	교사최종(I)	교사최종(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안정	안정	불안정	.330**	.101	.002
	불안정	안정	-.330**	.101	.002
불안정	안정	불안정	.431***	.131	.001
	불안정	안정	-.431***	.131	.001

\*\*  $p < .01$ , \*\*\*  $p < .001$ .

### 3. 어머니와 교사의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공격적 행동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보이는 공격적 행동 수준을 안정애착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및 교사와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은 불안정한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및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집단별 공격적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공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안정애착 여부에 따른 공격적 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어머니			
	안정(n=66)	불안정(n=34)	전체(N=100)	
교사	안정(n=66)	2.46(.71)	2.62(.59)	2.52(.66)
	불안정(n=34)	2.70(.51)	2.63(.46)	2.68(.49)
	전체(N=100)	2.63(.58)	2.64(.50)	2.63(.55)

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서 드러난 바와는 다르게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10> 참조).

<표 10> 영아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애착안정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N=100)

요인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여부	1	.05	.05	.16*
교사-영아 안정애착 여부	1	.34	.34	1.10
상호작용	1	.80	.80	.80
오차	96	29.29		
합계	100	720.00		
수정 합계	99	30.06		

\* $p < .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애착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집 적응 중 사회적 관계 적응과 긍정적 감정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집단에서 교사와 영아 간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적응 중 공격적 행동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보다 불안정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어머니-영아 애착안정성의 주효과만 나타났을 뿐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 적응과 긍정적 감정에 있어서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교사와 영아 간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사회적 관계 적응의 수준과 긍정적 감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 교사와의 안정애착 여부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 적응은 어머니 애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맺는 관계의 질이 사

회정서적 적응에 상대적으로 더 의미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맥락에서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교사와의 애착이 긍정적 적응에 필수적이라는 선행연구(구수연, 2005; 권인옥,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교사와의 질적인 정서적 유대감이 오히려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어린이집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서원경(2004)은 어린이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교사가 반응적이며 친밀감을 형성한다면 영아가 교사를 안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며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 바 있다. 즉, 교사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영아는 어린이집 맥락에서만은 좌절 시에도 쉽게 안정되고, 또래와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교사와의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영아 간 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어머니-영아 간 애착과 교사-영아 간 애착이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안 애착과 관련한 연구 문제 중 대안 애착 유형이 어머니와의 애착 유형과 독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어린이집에서 대안적으로 형성된 교사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을 상쇄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보상적 영향력이 본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김선희, 2012; 김윤경, 2005; 손혜숙, 1998; Cassibba, van Ijzendoorn, & D'Odorico, 2000; Copeland, Denham, & Demulder, 1997;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 Oppenheim, Sage, & Lamb, 1988)에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안정애착된 영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내적수행모델을 기초로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애착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 대안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 어머니 애착과 완전히 독립적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함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 일부 연구자(손혜숙, 1998; 신지연, 2004)들은 영아기의 복합 애착특성에 기초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가 자신의 어머니 및 교사와 맺는 관계의 질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별 영아가 양육자와 맺는 역동적인 애착 유형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공격적 행동의 경우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가 공격적 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교사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 유형의 효과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실행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하므로 문제 상황이나 갈등 발생 시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여러 가지 공격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어린이집 맥락에서 교사와 형성한 안정적인 애착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적 행동 요인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 실제로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공격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은 영아뿐만 아니라(오중은, 2001; Frankel & Bates, 1990; Matas, Arend, & Sroufe, 1978), 유아 대상 연구(김숙령, 1996; 이진숙, 2001; Bates, Maslin, & Frankel, 1985)에서도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최근 허정숙(2008)은 기질을 함께 고려한 경우 어머니-영아 간 애착의 질과 공격성과는 차이가 없는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보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집 영아반에서의 신입원아 적응과정을 참여관찰한 구수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영아의 경우, 격한 분리불안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 놀잇감을 망가뜨리거나 놀이 중 거칠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보였다. 즉,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울음과 같이 영아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이외에도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영아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영아를 대하는 것보다는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안 애착 대상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양육 특성은 초기 애착대상인 어머니와 동일하므로(Car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공격성과 같은 초기 부적응 행동은 교사의 긍정적인 양육을 방해하여 안정적인 애착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낯선 공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영아의 공격적인 행동 또한 정서적인 안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지하고, 민감하고, 따뜻하고, 일관된 태도로 영아에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 영아가 그 동안 다른 어린이집 또는 교사에게 양육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였으며, 하루에 몇 시간가량 이용 중인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사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사와의 관계에 이전 교사에게 형성된 내적표상을 이전하여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이상의 다른 대안 양육 제공자를 경험했는지가 대안 애착 대상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Howes & Hamilton, 1993; Howes, Hamilton, & Phillipsen, 1998; Howes, Matheson,



& Hamilton, 1994). 또한 대안 애착의 예측 변인으로 그간 알려진 적절한 양육태도 이외에 절대적인 양육 시간 또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Barnas, & Cummings, 1997; Raikes, 1993),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상기 변인들을 고려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을 보상하거나 조절하는 교사와의 애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예측 변인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영아기의 애착 형성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구수연 (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인옥 (2008). 영아의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귀자 (2004). 유아의 또래 지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 (2012).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교사-유아 관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 (1996). 영·유아의 보육경험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영유아보육학**, 6, 23-56.
- 김윤경 (2005).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집단치료가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아 (2004).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시설 초기 적응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 (2003). 5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원경 (2004).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혜숙 (1998).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연 (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원 (2004). 3-4세 유아 애착행동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남·조복희(2012). 어머니의 적응지원전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29-55.
- 양숙경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애경 (2006). 부모의 맞벌이 유무와 유아-부모, 유아-교사 애착안정성간의 관계. **아동교육학회지**, 15(4), 197-212.
- 양은주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 교사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중은 (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주 (2010).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영 (2006).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미 (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숙 (2008). 영아의 애착안정성 및 기질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hnert, L., Gunnar, M. R., Lamb, M. E., & Barthel, M. (2004). Transition to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infant - mother Attachment, infant negative emotion, and cortisol elevations. *Child Development*, 75(3), 639 - 650.
- Anderson, C. W., Nagel, P., Robert, M., & Smith, K. (1981). Attachment in substitute caregivers as function of center quality and caregiver involvement. *Child Development*, 52, 53-61.
- Barnas, M. V., & Cummings, E. M. (1997). Caregiver stability and toddlers' attachment-related behaviors towards caregivers in day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 171-177.
-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167–193.
- Blanchard, M., & Main, M. (1979). Avoidance of the attachment figure and social–emotional adjustment in day–care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45–446.
-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1989).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altreat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25–531.
- Cassibba, R., van Ijzendoorn, M., & D’Odorico, L. (2000). Attachment and play in child care centre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ttachment Q–sort for mothers and professional caregiver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241–255.
- Clarke–Stewart, K. A. (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are forms and features: The Chicago Study. In D. A.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 22–42). Washington, DC: NAEYC.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ist*, 44(2), 266–273.
- Copeland, J. M., Denham, S. A., & DeMulder, E. K. (1997). Q–sort assessment of child–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27–39.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3), 810–819.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of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837.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hild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63, 867–878.
- Howes, C., & Hamilton, C. E. (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5–32.
- Howes, C., Hamilton, C. E., & Philipsen, L. C. (1998). Stability and continuity of child–caregiver and child–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9(2), 418–426.

-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 (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65*, 264-273.
- Howes, C., Rodning, C., Galluzzo, D. C., & Myers, L. (1988). Attachment and child care: Relationships with mother and caregiver.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3*, 403-416.
- Jackson, J. F. (1993). Multiple caregiving among African Americans and infants attachment: The need for an emic approach. *Human Development, 35*, 87-102.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Lauritzen, S. L. (1988). *External families and systems of sufficient statistics*. New York, NY: Springer-Verlag.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3), 547-556.
- McCartney, K. (1984). The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up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Oppenheim, D., Sage, A., & Lamb, M. E. (1988). Infant-adult attachment on the Kibbutz and their relation to socio-emotional development four years l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2), 115-128.
- Raikes, H. (1993). Relationship duration in infant care: Time with a high ability teacher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09-325.
- Waters, E. (1987).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9*, 483-494.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child care teacher on their adaptation to child care. Data were collected in a purposive sample involving 100 infants and toddlers at age one and two, their mothers, and 36 teachers were analyzed with two-way AN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teacher varied by subfactors of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Emo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among infants who established insecure attachment with their mother. Second, the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Emotion' were significantly high when teacher-infant attachment was secure among infants who established insecure attachment with their mother.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mother-infant attachment on 'Aggressive Behavior' as infants who established insecure attachment with their mother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ggressive Behavior' than infants having secure attachment with their mother.

▶ *Key Words* : *infant's attachment to mother, infant's attachment to teacher, adaptation to child care*

논문투고 2013. 08. 13.  
수정원고접수 2013. 09. 28.  
최종게재결정 2013. 10. 17.